

대한민국안전대상 소방방재청장상 수상

품질은 기본, 안전은 생명입니다

국내 최초 맥주회사를 창립한 하이트맥주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맥주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하이트맥주(주) 전주공장은 지난 제8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정부포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품질을 통한 고객만족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장 조성으로 타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이트맥주(주) 전주공장

취재 | 임재근 기자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1933년 8월 국내 최초의 맥주 회사 조선맥주주식회사를 설립한 하이트맥주는 1978년 마산공장 준공, 1989년 전주 공장 준공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맥주회사로 발전하였다. 1993년 신제품 HITE를 개발 시판하면서 1998년 사명을 하이트맥주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국내 최초 100% 보리맥주 "MAX"를 출시, 2006년 FTK공법을 적용한 제품생산, 2007년 흑맥주 스타우드 리뉴얼 제품 출시 등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생산으로 국내 맥주 시장의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에 위치한 하이트맥주 전주공장은 1989년에 준공, 10만 평 부지에 녹지 공간만도 5만 평이 넘어 공장이기보다 공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자연친화적 환경을 자랑한다. 2008년 일본능률협회 선정 글로벌 브랜드 1위,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 1위 등을 차지한 바 있으며 2009년 대한민국안전대상 소방방재청상을 수상하였다. 그 밖에도 공장 내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업계 최초 혐기성 소화조 ABC(Anaerobic-Bio-Contract)System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기업,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윤순식 탐장

안전은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공장에서 보호구 착용이나 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생산활동의 장애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장에선 안전관리활동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이 생산 효율이나 작업자의 근무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사원 안전관리 체계구축은 물론 안전제안제도를 통해 불안정한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작업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안전개선활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규영 방화관리자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회사의 존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방화관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강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로 자주 "안 됩니다!!" "개선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이 꺼리기도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실수가 큰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공장은 안전 및 소방을 우선시 하는 회사입니다. 경영자층의 지원을 통해 위협요인 개선 및 소방시설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안전한 공장을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강충상 안전관리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충분히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는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설비의 오류보다는 불안정한 행동과 기계운전 중 무리한 점검을 통해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사람에 의한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업자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바꾸고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몫이죠. 모든 직원들이 가족이라는 생각에 앞서 제 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이 하고 있는 작업에 관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 안전을 하나로

2005년부터 에너지, 환경, 안전과 관련된 최고 토의·협의 기관인 에너지환경안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끌어 가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각 부서의 장과,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총 16명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 1회 파트별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 후 토의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 도록하고,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한 달간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계획, 진행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정례회의에 토론되는 내용은 주로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 부서나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주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계획에 따라 개선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전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식음료 업계 최초로 위험성평가 시스템 도입과 화재예방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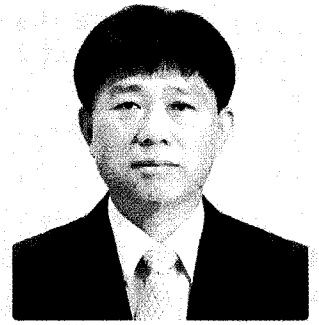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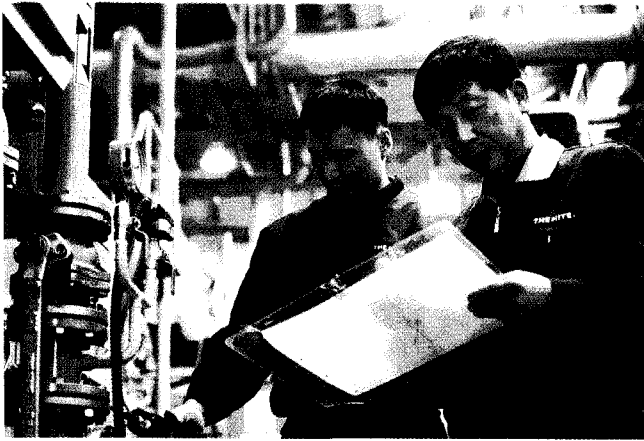
2006년 호남지역 식음료업계 최초로 위험성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꾸준히 위험요소를 개선해 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매년 전 제조공정에 대한 4M 기법을 기초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의 개선과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제조라인 증설 시에도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공정설계부터 시공까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이후 상시 안전관리 차원에서 위험성평가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지하에 매설되어 소방설비의 경우 부식의 위험이 많아 전 공장의 소방설비 배관을 지상으로 재설치하는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수 억 원을 투자하여 100여개의 R형 발신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공장혁신 운동 TPM, 제안제도 활성화

2003년부터 하이트맥주는 공장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TPM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1회 전국의 3개 공장의 총 32개 파트를 대상으로 제안경진대회를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환경, 안전, 품질 등 경영혁신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포상하고 있다. 전주공장에서는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1개 파트에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제안을 공모, 이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분야에 대한 내용만 도 연간 100여 건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험요소의 발굴과 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1년 1회 치러지는 제안경진대회는 각 파트별 최우수상과 32개 파트에 대해 금상, 은상, 동상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한다. 이러한 제안제도의 운영과 많은 포상으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통해 품질의 향상은 물론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다.

위험 공정에 대한 개선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의 제조공정은 제맥공장→사입공장→발효공장→저장 및 숙성공장→제품공장→출하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여러 공정 중 사입공정의 경우 MCC판넬, 배전판이 많은 공정으로 변압기 과열이나 합성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 또한 제품공정에는 주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제품 이송이 이루어져 소음에 의한 위험, 컨베이어벨트에 근로자 협착,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에 대한 위험, 파병 등에 의한 좌상 등의 위험이 있다. 제품출하공정의 경우 지게차 이용에 따른 협착, 지게차 전도, 충돌 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속회전에 따른 기계 소음은 차폐장치를 통해 소음을 차단하고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1시간씩 교대근무를 통해 과도한 위험요인 노출을 근절하고 있다. 협착 재해 예방을 위해 회전체에는 보호커버를 설치하였으며 지게차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1등 맥주회사, 대한민국 1등 안전 공장 건설에 최선

HITE는 Humanity, Innovation, Trust, Excellence의 이니셜로서 경영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첫 이니셜 Humanity에 나와 있듯이 저희 하이트맥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영이념을 강조하며 작업자 중심 안전제일공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비등을 신설할때는 제일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위험요인이 없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 사고예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989년 공장신설 때부터 사용한 소방설비 전체를 교체하고 R형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하로 매입돼 있던 소방배관을 모두 지상으로 올리고 감지기, 발신기, 소화전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투자부담이 큰 작업이었지만 제조시설 증설보다 앞서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쾌적한 작업환경은 생산성 향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1등 맥주회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조 판 제 공장장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노력에도 적극 노력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는 근로자 전원에게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가입해 줘 회사 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상해나 사고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만34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배우자에게 종합병원과 협약을 맺어 정밀종합검진을 받도록 해 주어 건강관리와 증진에도 이끔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사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취미에 따라 여과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해 나가므로써 재해 없는 작업장 건설과 근로자의 만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앞으로도 무재해 사업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